(733)

조 선

주체 106
(2017)
8

차 례

표지: 축구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한
평양중등학원 원아들　　사진 홍광남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성대히 진행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축복속에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지난 6월 6일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전국의 소년단조직들에서 추천된 모범적인 소년단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학생소년사업일군들, 청소년교양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하시였다.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토의되였다.

1. 소년단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 소년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2. 조선소년단규약개정에 대하여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하였다.

그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웅대한 설계도따라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드높이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자욱마다에는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자애로운 어버이, 다심한 학부형이 되시여 소년단원들을 당과 조국에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어려있다고 하였다.

오늘 조선소년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6(2017)년 6월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이후 지난 4년간 소년단조직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지적한 다음 조선소년단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년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데 대한 과업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뜻깊은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참가한 영광과 기쁨을 안고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더 잘하여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참된 소년혁명가로 준비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한데 이어 둘째 의정 《조선소년단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결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먼저 사회주의조국의 기쁨이고 자랑이며 희망이고 미래인 조선소년단원들의 명절 6. 6절을 맞으며 전국의 소년단원동무들에게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축복을 담아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영광스럽고 자랑찬 력사는 소년단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주체적소년운동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였기에 조선소년운동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오직 우리 당을 따라 곧바른 한길로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소년단원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날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이후 지난 4년간 전국의 소년단조직들과 우리의 수백만 소년단원들은 눈부시게 비약하며 약동하는 조국의 거창한 전진과 숨결을 같이하며 소년단기앞에 다진 맹세를 빛나게 실천하여왔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넋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조선소년단이 있기에 주체혁명의 전도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하시였다.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소년단, 조선로동당의 소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모든 소년단원들을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로 준비시키는것은 현시기 소년단조직들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을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들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대회에서 전체 소년단대표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일념을 안고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선창에 화답하며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와 조선소년단창립 71돐을 맞으며 학생소년들이 마련한 《소년》호 경비행기들을 인민군대에 증정하는 모임과 조선소년단창립 71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해님따라 휘날리는 붉은넥타이》가 진행되였다.

과학기술전당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71돐을 맞으며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2017》이 진행되였으며 조선소년단창립 71돐기념 사진전람회도 진행되였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은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즐거운 나날들도 보냈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조선소년단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정의 해바라기로, 사회주의강국의 기둥감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려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글 김정웅

조선소년단창립 71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해님따라 휘날리는 붉은넥타이》 진행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와 조선소년단창립 71돐을 맞으며 학생소년들이 마련한 《소년》호 경비행기들을 인민군대에 증정하는 모임 진행

여러 나라들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인디아, 로씨야를 비롯한 22개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22종에 15개 나라 어문으로 1만 5 750부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비롯하여 출판된 로작들의 앞표지 웃부분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함을 정중히 모시였다.

뱐마, 로씨야, 도이췰란드, 벌가리아, 우간다, 민주꽁고를 비롯한 여러 나라 출판사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서문을 달고 로작들을 출판하였으며 발행식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출판관계자들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이 참가한 발행식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하게 된 것은 커다란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로작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과업 관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창조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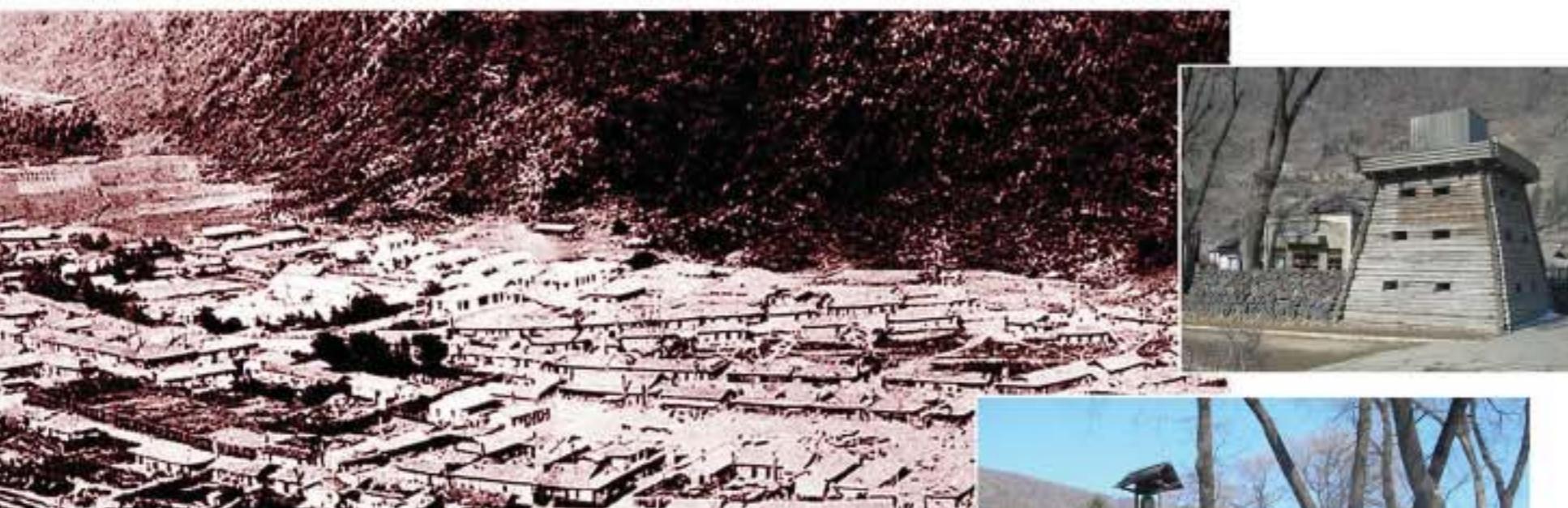
글 최의림

전민을 조국해방성전에로 불러일으킨 혁명의 홰불

력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굿굿이 이어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가고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의 날(1945. 8. 15.)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전쟁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와의 결전을 선포하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면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중에는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80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는 조선의 망국사의 흐름을 조국해방에로 돌려세우고 항일무장투쟁을 전체 조선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수행해나가는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전민항쟁에 의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것을 기본전략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6(1937)년 3월 조선에 대한 일제의 파쑈통치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던 준엄한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조국으로 진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주체26(1937)년 6월 4일 보천보를 공격하여 적통치기관들을 순식간에 습격소탕하고 조국의 하늘가에 민족재생의 서광을 알리는 홰불을 지펴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천보전투후 황급히 뒤따라오는 일제의 대병력을 령활무쌍한 전법으로 구시산과 간삼봉에서 련이어 통쾌하게 소탕하심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과시하고 국내진공작전의 성과를 공고히 하시였다.

보천보전투는 조선인민에게 조국해방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을뿐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일치단결하여 일제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철리를 새겨주었으며 보천보에서 타오른 홰불은 삽시에 전민항쟁의 불길로 타번져갔다.

조선의 넓은 지역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의 군사정치활동이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무장투쟁과 대중투쟁이 밀접히 결합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전민항쟁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보천보전투승리이후 국내의 도처에 전민항쟁을 위한 26개의 비밀근거지와 60여개의 림시비밀근거지들이 꾸려졌으며 1940년대 전반기 북부조선의 온성지구로부터 조선남해의 제주도에 이르는 곳곳에 결성된 각이한 형태의 무장봉기조직들은 무려 120여개에 달하였다.

일제침략자들도 1942년에 저들이 탐지해낸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해도 180여개나 되고 조직적력량은 50만명이 넘는다고 비명을 질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보천보의 홰불은 삼천리강토에 타번져 전체 조선민족을 침략자들과의 판가리결전에로 궐기시켰으며 마침내 일제의 패망과 조국해방의 날을 안아오게 하였다.

조선인민에게 해방의 서광을 안겨준 보천보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날로부터 80년,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은 조국해방의 그날로부터 72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민족사적사변으로 되는 이날들을 뜻깊게 맞이하면서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민족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고있다.

사진 리학명 글 김필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는 청소년학생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 당시의 보천보시가와 경찰관주재소, 포대

攜帶電話機

金日成一派로 判明

咸南警察部서 出動

女黨員도 二十餘名

東亞日報 號外

普天堡襲擊續報

兩方死傷七十名

三署에서 官總出動

보천보전투가 진행된데 대한 당시의 자료

조국광복회 조직책임자회의가 진행된 연사군 신장리 상단산림시비밀근거지

전민항쟁조직들이 도처에 조직된데 대한 당시의 자료

병사들을 찾아 전선천리

조선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8월 25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사를 뜨겁게 되새겨보게 하는 선군절이다.

비범한 령도실력과 인민의 령도자, 천출명장으로서의 특출한 풍모와 자질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57년전의 이날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때로부터 장장 50여년에 걸쳐 줄기차게 이어오신 선군혁명령도사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믿음과 친어버이사랑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이다.

특히 지난 세기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길에 결연히 나서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선군장정과 같이 그렇듯 간고하고 시련에 찬 나날은 그 언제,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있어본 적이 없었다.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좌표는 언제나 조국수호의 최전방이였고 그이의 생활방식은 언제나 수수하면서도 전투적인 야전식, 빨찌산식이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우신 그이께서는 주체84(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시찰에 이어 감나무중대와 철령, 초도와 판문점, 오성산 등에로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인민군대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 인민의 행복의 수호자, 창조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주체85(1996)년 한해에 2만 5천여리에 달하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신 사실만으로도 언제나 군인들속에 계시며 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의 자욱자욱을 느낄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찾으시는 부대와 구분대들마다 군인들의 침실과 식당, 세목장과 주부식물창고, 야외휴식장에 이르기까지 다 돌아보시며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였고 현지시찰의 길에서 군인들의 솜동복두터이도 가늠해보시며 군인들의 겨울용솜옷과 신발을 더 잘 만들어 공급하도록 하시였으며 중대예술소조공연과 중대군인들의 오락회, 배구, 롱구경기들도 보아주시며 문화정서생활을 잘해나가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주체100(2011)년 1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선군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자신의 한평생을 더듬어보시면서 나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군대를 시찰하는것으로부터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였으며 인민군대를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왔다, 나는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진 산중초소와 섬구분대할것없이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찾아가보았으며 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었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선군장정이 있었기에 조선혁명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으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면서 오늘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빛나게 계승해가시는 선군혁명령도의 한길따라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미래에로 계속 힘차게 전진해가고있는것이다.

글 최광호

최전연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9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 조선혁명박물관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있는 조선혁명박물관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태양조선의 대국보관으로 전변되였다.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혁명전통교양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개건공사를 직접 발기하시였으며 형성안과 전시방안도 여러차례나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해당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은 연건평이 6만 350여㎡에 달하는 조선혁명박물관의 개건 및 증축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수만여점의 사적물과 자료들을 전시한 100여개에 달하는 참관호실들을 품위있게 꾸리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전력사적로정을 종합적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는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만년재보이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총서관과 10개의 시기관들인 《항일혁명투쟁시기관》, 《새조국건설시기관》, 《조국해방전쟁시기관》,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관》,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관》, 《3대혁명심화발전시기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시기관》, 《사회주의위업옹호고수시기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시기관》 그리고 3개의 별관들인 《조국통일관》, 《해외동포관》,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으로 되여있다.

여기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개척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을 빛내여가실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시기 위하여 전인미답의 험난한 선군혁명의 길을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만년토대를 억척같이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출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이 폭넓고 깊이있게 전시되여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창조하여온 천만군민의 영웅적투쟁내용을 담은 자료들도 생동하게 전시되여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과 영상미술작품들이 총서관과 참관호실들, 홀과 복도구역들에 정중히 모셔져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색조각상과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관》에 모신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에 서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은 참관자들의 가슴가슴을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한없는 그리움으로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여주는 혁명사적물, 친필, 로작, 유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을뿐아니라 대형반경화들인 《보천보전투》와 《1211고지전투》 등 생동한 반경화들과 모형들의 특색있는 전시와 조명효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오늘 조선의 천만군민은 조선혁명박물관참관을 통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승리의 력사가 어떻게 마련되고 빛나게 이어져오고있는가를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기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결의들을 굳게 다지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김태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색조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데 대한 내용과 초기혁명활동시기의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데 대한 내용과 구호문헌들도 전시되여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사적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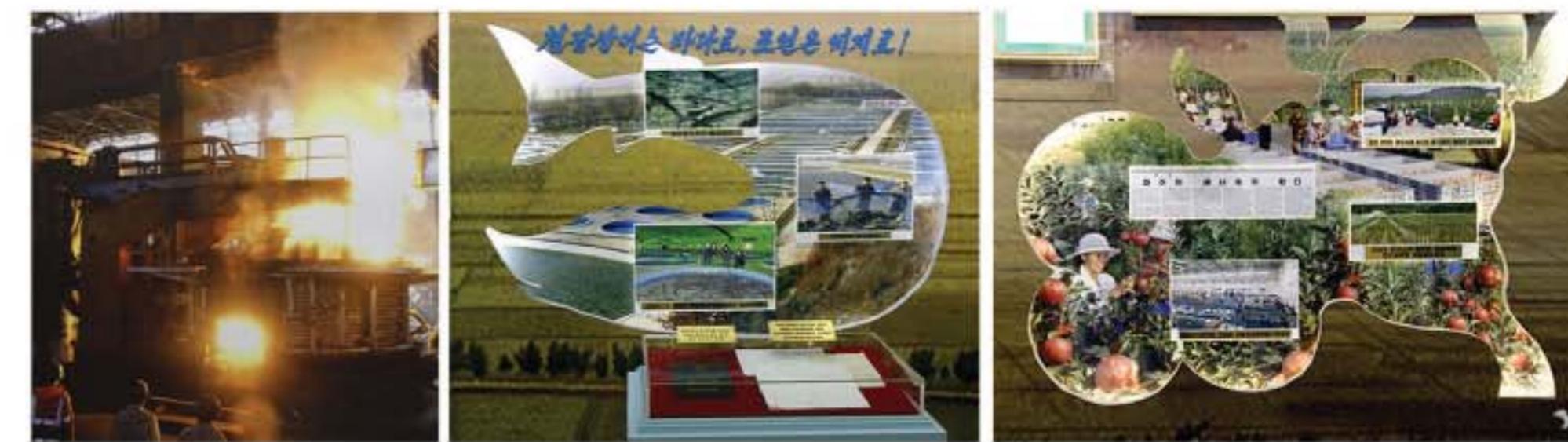
대형반경화 《보천보전투》

해방후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관》도 꾸려져있다.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에 서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진문헌들과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내용과 선군정치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내용들도 전시되여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전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혁명전사들사이의 동지적관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열렬한것인가를 력사적사실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조국통일관》과 《해외동포관》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내용들도 전시되여있다.

금골의 영웅소대

조선의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금골광산 4. 5갱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천령산줄기의 험한 길을 넘으시여 검덕(금골)을 처음으로 찾으시였던 주체50(1961)년에 태여난 청년들로 주체69(1980)년 7월에 조직된 채광3소대, 그후 세월과 더불어 사람들도 적지않게 바뀌였지만 일명 《61년생소대》로 계속 불리워온 혁신자집단이 있다.

인차를 타고 근 2시간, 다음 수직승강기를 타고 지심으로 수백m 더 내려가야 닿게 되는 소대의 작업현장의 온도는 사시장철 40℃가 넘는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광부들치고 고경찬소대장이 이끄는 이 소대가 해마다 특히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이 전례없이 로골화되여온 지난 10여년간에는 오히려 2배이상으로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거의나 없다.

하지만 올해초 고경찬영웅소대의 형편에서는 년간계획만 수행하자고 해도 대단히 아름찰것이라고 그들의 대다수가 우려했었다.

객관적조건과 환경을 내놓고도 계획수행의 중요한 담보로 되는 기능공력량이 소대장을 포함한 3명뿐인데다가 지난해에 새로 배치된 4명의 제대군인들을 포함하여 15명 소대정원의 절반이상이 무기능공들이였던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도 기어이 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정초부터 증산활동을 드세차게 벌렸다.

소대장을 비롯한 영웅광부들은 새 세대 광부들에게 막장일의 묘리를 하나하나 틔워주고 기능을 배워주며 그들곁을 떠나지 않았고 새 성원들은 그들대로 하루빨리 새 기준, 새 기록의 창조자가 될 열망안고 이악하게 기술기능을 련마하였다.

지심 650m, 700m, 800m 수준에 4개의 채굴장이 전개되고 7대의 착암기가 동시에 가동된 가운데 작업조들사이 그리고 매 성원들사이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눈앞의 현실보다 래달, 래년의 전망을 투시하는 로숙한 사업조직과 일본새로 고경찬소대장은 생산조건을 잘 갖추어놓고 그 어떤 뜻밖의 정황도 제때에 수습하고 대책해나가면서 집단을 계속혁신에로 추동해나갔다.

매 성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잘 알고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수완과 보다 중요하게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내세워주는 사랑과 믿음, 감정이나 주관에 기울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고경찬소대장의 명백한 사업원칙에 의하여 집단안에 언제나 차넘치고있는 화목과 단합은 경쟁열풍과 함께 소대가 계속 성과를 확대해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비결이다.

하여 소대에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으며 년간인민경제계획을 101. 5%로, 6월 29일까지는 2년분 광물생산계획을 101. 1%로 넘쳐 수행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4월 21일 이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주시면서 고경찬영웅소대 동지들이라고 값높이 불러주시고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사진 리명국 글 최광호

2년분 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소대에서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광물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예비공구와 부속품들을 정상적으로 마련해놓는다.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 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

하루일을 마치고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여러가지 수지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애, 조국애가 넘치는 일터

평양시 락랑구역의 통일거리에는 여러가지 수지용품생산으로 널리 알려진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이 있다.

주체59(1970)년 10월에 간단한 일용품들을 생산하는 자그마한 단위로 창립된 공장은 지난 40여년간 발전의 연혁을 새겨왔다.

조국보위초소에서 군사임무수행중 부상을 당한 자기들을 영예군인으로 내세워주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배려에 보답할 마음을 안고 종업원들은 뜨거운 공장애, 조국애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공장을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수지일용품생산기지로 전변시켰다.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받들고 공장의 영예군인들은 수천㎡에 달하는 생산건물을 개건하고 많은 설비들을 현대화하였을뿐아니라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힘있게 추진하였다.

오늘 공장은 주변의 풍치와 어울리게 특색있는 생산건물들과 보조건물들,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산뜻한 구내도 이채롭지만 현대화, 정보화, 집약화실현에서 큰 전진을 가져왔다.

공정관리체계, 품질관리체계, 전력관리체계, 업무관리체계로 이루어진 통합조종체계가 구축된 공장에서는 실시간적이며 직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생산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하고있어 경영활동에서 최대한의 리익을 얻고있다.

수지판성형기, 수지고뿌성형기, 대형사출기, 자동중공성형기, 관성형기, 관접합기 등 갖가지 설비들을 갖춘 공장에서는 수십종의 수지제품들이 생산되고있으며 그 질도 높아졌다.

설비들중에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와 협조로 이미 있던 설비들에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수십년이 된 오늘도 새것처럼 리용하고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공장에서는 편의봉사시설과 과학기술보급실도 새로 꾸림으로써 영예군인들이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문화정서생활도 다양하게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지난 5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예군인들이 일하는 본때가 다르다고, 혁명적군인정신이 차넘치는 공장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공장의 영예군인들은 영광의 일터를 빛내여갈 뜨거운 공장애,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열렬한 조국애를 안고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태현

운동치료회복실

과학기술보급실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다.

더 많은 천연약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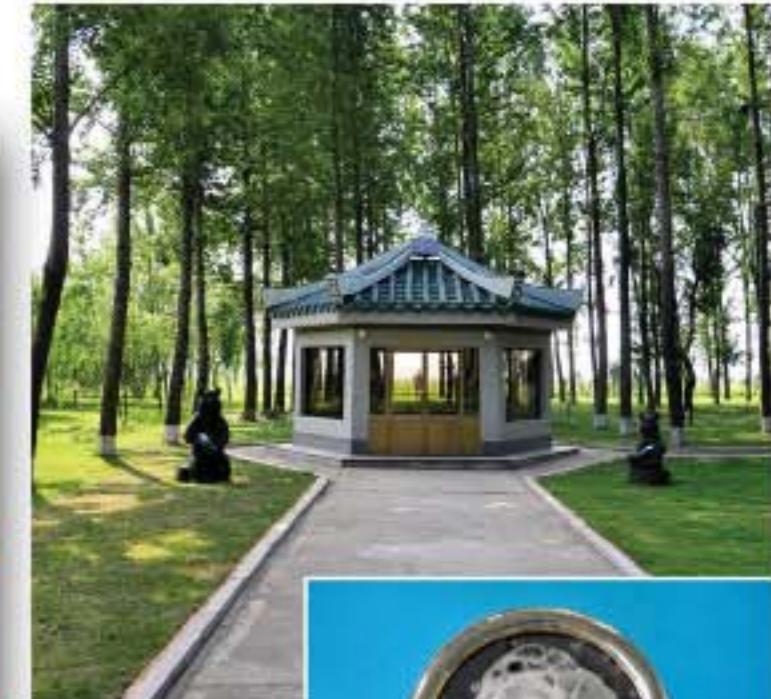
산좋고 물맑은 조선에는 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약수와 온천이 많다.

예로부터 치료폭이 넓고 그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인기가 높은 강서약수도 그중의 하나이다.

칼시움이온, 나트리움이온, 마그네시움이온, 철이온, 규산이온, 염소이온, 류산이온, 수소탄산이온 등 각종 미량원소들이 많이 함유되여있는 강서약수는 위의 산도가 높고 낮은데 다 효과가 있을뿐아니라 동맥경화, 당뇨병, 만성간염, 만성신우염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의 치료와 예방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

강서약수가 끝없이 샘솟는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리에는 주체62(1973)년 3월 19일에 창립된 강서약수공장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종합조종실에 경영관리체계, 생산관리체계, 현장자동조종체계로 구성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음으로써 약수가 나오는 원수장으로부터 출하공정에 이르기까지 공장전반계통에 대한 실시간감시측정과 자동조종을 진행할수있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주입 및 마개밀봉기, 자동세척주입타전기 등 설비들을 우리 식으로 현대화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비약적으로 높이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여러 단위의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탄산가스분리공정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종전보다 탄산가스생산량을 늘이고 약수의 질도 더욱 높이였다.

또한 위생통과실도 꾸려놓고 작업장들마다에 유리차단벽을 설치하여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였으며 현대적인 검사기로 제품검사를 질적으로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사람들의 사용에 편리하게 0. 35L와 0. 65L유리병약수, 18. 9L수지통약수, 0. 33L와 0. 5L수지병약수들을 생산하고있다.

오늘 누구나 좋아하고 수요가 높은 강서약수는 평양시와 전국의 여러곳에 공급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사진 리명일 글 김선경

원수장과 용출구

실험분석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국제사무소로부터 받은 원산지명 등록문건

스위스국제표준기술검사소에서 발급한 검증보고서

원아들의 체육경기

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경기가 지난 6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훌륭히 일떠선 평양중등학원에서 진행되였다.

새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각 도들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새로 일떠세워주도록 하신데 이어 원아들속에서 체육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을뿐아니라 전국의 중등학원 원아들의 체육경기도 마련해주시였다.

이번 체육경기에서는 축구, 배구, 롱구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되였다.

평양시팀과 황해남도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 평양시팀과 함경북도팀사이의 녀자배구경기 등 다채로운 종목들에서 원아들은 학원에서 련마한 자기들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사회주의강국의 기둥감들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행복하고 장한 모습을 보여준 원아들의 체육경기는 온 나라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사진 홍광남 글 박지은

세계지적제품 개발자들

지난해 7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리제드로나트의 합리적인 합성 및 제제방법을 확립한 **김일성**종합대학 자연과학연구원 연구사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장영만과 첨단과학기술교류사 부원 김성운에게 최우수발명가메달과 증서를 수여하였다.

그들이 리제드로나트에 대한 연구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딘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전이였다.

당시까지 리제드로나트는 고급한 뼈대사활성물질로서 세계의 수많은 약학전문가들과 림상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고있었지만 합성기술이 복잡하고 어려울뿐아니라 일부 나라들에서만 첨단특허기술로 독점하고있었기때문에 그 성공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남들이 만드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겠는가 하는 민족적자존심이 우리를 분발시켰다.》

그때를 회상하며 장영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부식성물질과 유독성기체로 인한 건강파괴, 실험조작상오유로 인한 폭발위험…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실험을 거듭하며 그들은 끝내 리제드로나트 전합성경로를 새롭게 밝히고 합성조작이 간편하면서도 우월한 합성기술을 완성하게 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리제드로나트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널리 리용될수 있는 의약품으로 만들기 위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탐구의 길을 계속 이어갔다.

조선사람들의 체질에 맞으면서도 쓰기도 좋고 효능도 제일 높게, 이것이 그들이 세운 의약품개발사업의 기준이였다.

수많은 연구와 림상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들은 뼈성김증과 관절증 등 뼈질환치료에서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리제드로나트의 사용량과 치료주기를 확립하였다.

뿐만아니라 척추변형증과 같은 난치성 뼈질환치료에도 리제드로나트를 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새롭게 연구함으로써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첨단약품을 개발하게 되였다.

최근년간에도 그들은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열정으로 뼈종양과 같은 불치 및 난치성뼈질환치료에 효능높은 뼈대사부활제로 인정되고 있는 졸레드론산을 개발하고 의약품으로 규격화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의학과학발전에 이바지한 그들은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오늘도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김선경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하고있는 장영만(왼쪽)과 김성운(오른쪽)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받은 최우수발명가메달과 증서

관록있는 건축설계집단

로동당시대의 건축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권위있는 설계연구기관설립의 중요성을 통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직접적인 손길아래 백두산건축연구원이 창립된것은 주체71(1982)년 7월이다.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소유한 능력있는 설계일군들과 전도유망한 대학졸업생들로 꾸려진 연구원은 자기 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지난 35년간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대상설계를 진행하였으며 건축과학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건축설계연구실들과 환경위생, 건재분야 등의 과학연구소들이 있는 연구원에는 능률높은 최신식설계수단들이 그쯘히 갖추어지고 설계작성의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것을 비롯하여 연구활동을 위한 최상의 조건과 환경이 구비되여있다.

이곳에서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조선의 과학자라는 신심과 배짱을 안고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색과 탐구활동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하여 최근년간에만도 창전거리,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과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과 릉라곱등어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과학기술전당, 려명거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의 건축형성안과 설계안들을 창작완성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렬에 서있는 건축연구집단의 면모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그와 함께 섬유장식칠감, 부각장식칠감, 타일접착제, 량면종이석고판 등 새로운 마감건재들을 개발하였으며 지열에네르기를 리용하는 랭난방설비의 국산화를 다그치는데도 적극 기여하였다.

흘러온 나날에 연구원은 수많은 학위학직, 명예칭호소유자들을 배출하고 5.21건축축전과 전국과학기술축전 등 국내축전 및 과학기술발표회들과 국제적인 발표회 등에서 특등, 1등을 거듭하였으며 수백건의 국가과학기술성과등록증과 국가발명증서를 받았다.

오늘도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리며 가꾸는 미술가, 원예사라는 자각을 안고 설계도면에 찍는 점 하나, 설계도면에 긋는 선 하나에도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문명, 인민의 리상과 꿈을 그대로 담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사진 홍광철 글 최광호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기념비적건축물설계에 대한 합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설계한 건축물들의 일부

첨단개발의 앞장에 선 청년과학자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진군길에서 창조와 위훈으로 삶의 자욱자욱을 수놓아가는 청년들 속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의 청년과학자들도 있다.

20대, 30대의 청년들인 그들은 인공지능, 과학기술계산 등 각종 프로그람들을 개발하여 대학의 정보화실현은 물론 나라의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큰몫을 맡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연구소에서는 70여건의 가치있는 프로그람들이 작성되여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 단위들에 도입되였는데 여기에는 그들의 탐구의 지혜와 열정이 슴배여있다.

지난해 옥류아동병원의 정보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이 과업을 솔선 맡아나선 다매체정보연구실 실장 주광수, 연구사 현광성을 비롯한 청년과학자들이 현지에 달려갔을 때 예상치 않았던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앞에 놓여있었다.

그중에서도 설비들의 화상규격을 표준화하는 사업은 각지에서 만들어진 설비들의 화상규격을 분석하여 국제표준화상규격으로 맞추어야 하는것으로 하여 방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화상규격을 표준화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수술장화상협의체계, 과호상간 화상협의체계를 2개월만에 개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비루스왁찐개발실의 청년과학자들도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국내에서 류포되고있는 콤퓨터비루스를 빠른 속도로 거의나 발견, 제거할수 있는 왁찐을 개발하여 많은 단위들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나날에 그들의 대다수가 학위학직소유자로 되였다.

새것에 대한 창조, 이것은 연구소 청년과학자들의 리상이고 목표이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창조속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청춘시절이 별처럼 빛나고있다.

사진 홍태웅 글 유정

정보기술제품개발에 집체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옥류아동병원, 기상수문국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승마기술보급을 위한 협의회

승마기술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는 조선에서는 승마운동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 승마기술발전에서 많은 전진을 가져오고있다.

여기에는 나라의 승마기술발전을 위한 마술협회 성원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4년전에 조직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마술협회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 승마기술을 보급하고 그들이 승마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할뿐아니라 우수한 경마선수들을 키워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가도록 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협회에서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승마운동을 할수 있도록 훌륭히 꾸려진 미림승마구락부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승마기술보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청소년과외승마강습은 승마운동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주고있을뿐만 아니라 선수후비양성의 첫 단계로 되고있다.

기초동작으로부터 승마술 그리고 경마의 특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친절하게 과학적으로 배워주는 교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기마수자격을 받고있다.

그들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청소년들은 경마선수후비로 선발되고있다.

협회에서는 과외승마소조도 내오고 선발된 선수후비들에 대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주고있다.

협회에서는 올해부터 마술협회 회원들과 승마애호가들이 참가하는 경기를 조직하는데 희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나라의 승마기술발전을 위한 마술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회원들과 애호가들이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속에서는 높은 경마술을 가진 선수들이 배출되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김태현

청소년들을 위한 과외승마강습도 진행하고있다.

조선서해연안의 간석지습지와 철새보호관리를 위한 민족토론회 진행

문덕철새(습지)보호구에 대한 국제적조사사업

철새들의 보금자리

아름다운 환경과 풍부한 생태계의 보호를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선에는 생물다양성보존에 유리한 곳마다 동식물보호구들이 설정되여있다.

해마다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들고있는 문덕철새(습지)보호구도 그중의 하나이다.

조선서해안의 청천강하류, 강어구에 위치하고있는 이 보호구는 주체84(1995)년에 설정되였으며 면적은 3 000여정보이다.

세계8대 철새이동경로의 하나인 동아시아-오세안주지역이행경로상에 놓여있는것으로 하여 이 보호구일대는 수많은 새들의 중계지, 서식지로 되고있다.

여기서 조사기록된 새의 종수는 186종이며 그중 철새는 161종으로서 전체 종수의 86. 5%, 물새류는 91종으로서 전체 종수의 48. 9%이다.

중요한 보호대상인 아시아의 위협종새류가운데서 흰두루미, 재두루미, 갯두루미를 비롯한 두루미류와 세계적으로 희귀한 물개리, 큰기러기 등 기러기류, 알락꼬리마도요, 마도요, 큰부리도요 등 도요류들 그리고 저어새, 너화, 노랑부리백로와 같은 물새들이 정기적인 서식지로 리용하고있다.

최근년간 철새관측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3만마리이상의 물새들이 정기적으로 관찰되였다.

주체105(2016)년 11월 조사기간에만도 이 지역에서 약 4만마리의 물개리가 관찰되였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마리수의 58. 8%에 해당된다.

문덕철새(습지)보호구에 사철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드는것은 지리적위치로서만이 아니라 좋은 생태환경이 보존되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이 보호구일대에는 환형동물 7종, 연체동물 15종, 갑각류 20종이 있으며 수역들에는 총 62종의 물고기류가 분포서식하고있는데 이것들은 물새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먹이조건으로 되고있다.

또한 청천강이라는 큰강기슭에 놓여있으며 조선서해안의 간석지와 개펄, 광활한 논과 관개수로망, 함락지에 생긴 넓은 물주머니와 거기에서 자라는 무성한 수생식물 등 다양한 식물상으로 하여 이동성새들의 더없이 좋은 서식지, 은신처로 되고있다.

좋은 생태환경이 보존되고있는것은 이 보호구일대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보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호구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는 관리소를 내오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정기적인 새조사관찰을 위한 철새관측시설물들을 곳곳에 꾸려놓고 보호증식사업을 더욱 개선하고있다.

또한 이 일대에서 농경지개간을 비롯한 생태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접지, 걸그림 등을 통한 선전보급활동을 진행할뿐아니라 보호구주변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자연보호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습지협약, 국제자연보호련맹,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보호구일대의 철새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있다.

문덕철새(습지)보호구는 오늘 새들의 보금자리로 되고있다.

사진 김설희 글 박병훈

천연기념물

대성산목란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 자리잡고있는 중앙식물원에서 푸르싱싱 자라고있는 나무들중에는 대성산목란도 있다.

목란꽃은 조선의 국화이다.

나무에 피는 꽃이여서 목란이라고 하는 이 꽃은 아름다울뿐아니라 향기도 그윽하고 나무잎도 보기 좋으며 생활력도 있어 조선인민이 제일 사랑하는 꽃이다.

주체53(1964)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꽃나무를 보시고 그저 함박꽃나무라고 부르는것은 어딘가 좀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에는 《란》자를 붙였는데 나무에 피는 꽃이라는 뜻에서 《목란》이라고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목란꽃은 아름다울뿐아니라 굳세면서도 소박하고 고상한 맛이 있어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과 같다고 하시였다.

이때부터 목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였다.

목란은 조선의 일부 북부지역을 제외한 각지에서 절로 자라거나 심어가꾸는 잎지는 떨기나무 또는 키나무이다.

대성산목란은 높이가 5m, 밑둥둘레는 0.9m이며 나무갓너비는 동서로 4m, 북남으로 5m이다.

5~6월에 햇가지끝에 흰색의 향기로운 꽃이 핀다.

꽃받침잎은 3개이고 꽃잎은 6~9개이다.

닭알모양의 열매는 9월경에 익는다.

대성산목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관리되고있다.

사진, 글 박영조

력사유적

평 양 종

평양의 오랜 력사유적인 대동문의 옆에는 슬기로운 조선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전하는 평양종이 있다.

평양종은 1726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부벽루 서쪽뜰에서 주조완성한것이다.

종의 무게는 12t 914kg이고 높이는 3.1m, 아구리 직경은 1.6m이다.

종에는 불상, 사천왕상, 구름무늬, 종명, 종의 래력을 쓴 글 등이 부각되여있다.

종머리에 붙어있는 종고리는 서로 엉켜있는 청룡과 황룡을 형상한것으로서 매우 섬세하면서도 생동하다.

평양종은 당시 객사이던 대동관앞에 종각을 짓고 걸었다.

평양종은 주체104(2015)년 8월 15일 0시 조선에서 표준시간의 첫 종소리를 울리였다.

지금의 종각은 1827년에 고쳐 지은것이다.

평양종은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 손꼽히는 큰 종들중의 하나로서 모양이 아름답고 그 소리 또한 장중하여 일찍부터 평양의 명물로 일러왔다.

1890년대까지 평양성에서는 아침, 저녁에 울리는 평양종의 종소리로 모든 성문들이 동시에 여닫기였고 성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변들이 종소리로 알려졌다.

외적이 쳐들어올 때에는 회수에 제한없이 울려 인민들을 애국성전에로 불러일으키군 하였다.

오늘도 평양종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물로 보존관리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선경

자멸의 길로 줄달음치는 일본

세상에 제죽을줄 모르고 헤덤비는자를 가리켜 《돈 끼호떼》라고 한다.

수백년전 세계문단계가 낳은 이 미련한 《돈 끼호떼》가 오늘의 세계에 실물로 나타나 세상사람들의 조소를 받고있으니 그것이 바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일본반동들이다.

일본은 지난세기에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피비린내나는 살륙만행을 감행한 전범국으로서 참전권과 교전권을 박탈당하였다.

인류앞에 지은죄가 두려워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간판이나마 내들었던 일본이 미제의 비호밑에 군국화의 길을 야금야금 걸어오다 못해 오늘은 로골적으로 전쟁국가를 제창하고있다.

일본수상 아베는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실행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떠벌이면서 형식상이나마 있던 《평화헌법》구조를 기어이 뜯어고치고야말 의사를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는가 하면 정객들속에서는 화약내짙은 선제공격론이 왕왕 튀여나오고있다.

일본은 국제정세변화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각종 전시법들을 강압제정함으로써 해외침략의 문을 열어놓았다.

5년간 련속 군사비를 증강하여온 일본은 올해에도 국회참의원에서 지난해에 비해 1. 4% 증가된 5조 1 251억￥을 2017회계년도 군사예산으로 통과시켰다.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였던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이루어보려는 일본의 재침야망은 한계를 벗어나고있다.

일본《자위대》는 공격형의 무력으로 완전히 전환되였으며 미국에 추종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뻐젓이 진출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일본방위성은 미태평양함대의 보급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해상《자위대》의 대형호위함 《이즈모》호를 출동시켰을뿐아니라 조선반도로 기여드는 미항공모함타격집단과의 해상공동훈련, 공중전훈련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유사시 미국주도의 련합군에 합세할 실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오늘 정계를 극우익분자들의 활무대로 만들고있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국수주의와 민족배타주의로 물들이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침략군이 부르던 《기미가요》가 공공연히 제창되고 일본의 학교들에서는 파쑈독재자 히틀러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나의 투쟁》이 교재로 사용되여 세상을 경악케 하고있다.

도적고양이 기름종지 노리듯이 군사대국화를 저애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야금야금 허물어버린 일본반동들은 인류앞에 시효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수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집단적인 참배놀음을 벌려 사회를 우익화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라는 과대망상증에 들떠 어리석은 개꿈을 꾸지 말고 과거 조선인민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부터 하여야 한다.

그길이야말로 일본이 자멸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글 김현희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결정을 반대하여 시위투쟁을 벌리고있는 일본인민들

《야스구니진쟈》참배에 항의하여 초불시위를 벌리고있는 일본인민들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연습에 광분하는 일본《자위대》

낸곳 : © 조선화보사 2017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서철남 13606— 781131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내 나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naenara. com. 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해칠보의 여름 사진 변대철